

# 물 리 치 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Korean Physical Therapist Association

## 회 원 여 러 분 께

홍보이사 김 정 숙



회원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될 줄 아오나 공사 다망으로 형편을 고려하여 먼저 지면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협회 개편으로 홍보이사라는 막중한 자리에 올라서게된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김 정숙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원 여러분께 취임의 변을 몇마디 하고자 하오니 인내심을 가지시고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항상 바쁜 나날 속에서 각기 맡은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오늘도 땀을 흘리시는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협조속에 우리 협회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한배를 탄 공동의 운명체로서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증지를 모아서 매듭을 하나 하나 풀듯이 점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하여야 될 것 입니다. 이것은 결코 불가능만 하다고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역경을 이겨 나왔기 때문에 “하면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대처 해야 될 줄 압니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 협회는 금년에 신입회원을 영입한다면 실제로 1,000명이 넘는 회원을 갖는 매머드 단체가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양적인 팽창으로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져 오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협회가 우리에게 무슨 혜택을 줄 것인가 바라기 전에 우리가 협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각자가 협회를 중심으로 계속 상호 호혜원칙에 입각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4년에 서울에서 아시아 물리치료사총회가 개최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10개국 이상의 대표단이 참석 할 것이고 이들을 안내하는 문제, 숙식제공, 회의장소 선정, 교통편의 등등 많은 제반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절대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협회에서는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놓고 뒹뒹하게 만날 수 있는 전용회관 건립 입니다. 우리가 건립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회관건립을 위해 스스로 찬조금을 내는 정신이 매우 아쉽군요. 물론 직장에서 자기가 번 수입의 일부를 쪼갬다는 것이 아깝게 느껴 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 자신을 위해 회관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과연 아까운 것일까요?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물리치료비 적정숫자 문제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타 분야에 있는 사람과 똑 같이 일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숫자가 너무 낮아서 거론할수 있는 요인이 있겠군요. 적정한 숫자는 우리의 신분보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결코 좌시할 수 만은 없을 것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회원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문제도 있습니다. 보수교육에 스스로 참여하셔서 회원 스스로가 긍지를 가지시고 임상에서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단독 개업이 실현된다면 매우 연관이 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바람직한 방향에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회비를 잘 내주셔야 예산을 세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걱정해서 해주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성인지

물라도 협회는 여성회원이 매우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회원의 폭을 넓히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 협회 사무실이 마련되면 이곳을 중심으로 각종회합과 행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회원들간의 친목도모와 취미 생활에 필요한 강습회, 바자회, 전시회등도 계획하고, 우리의 인술을 펼 수 있는 이웃돕기도 구상중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직장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보다 참신한 자세로 직장분위기를 바꿔 놓을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회원 여러분들은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보다 애착심을 가지셔야 될 줄 압니다.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일시적인 피난처라는 자세로 근무하는 일부 회원들 때문에 전체가 그런인상을 받는다면 물리치료 발전과 회원의 신분보장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로인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우는 자명한 것이오니 우리 스스로가 자제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회원들끼리 서로 비방을 한다거나 비협조로 일관한다면 스스로 신분을 각는 좋지 못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출신학교를 떠나서 서로 허물을 감싸주고 이해하며 선후배간에 신뢰심과 존경심으로 대한다면 얼마나 흐뭇한 일이겠습니까. 홍보이사로서 아쉬운 점은 회지발간을 하는데 회원들의 무관심으로 애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회지는 여러분의 손으로 장식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역량을 꾸미는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임상에서 경험을 토대로한 초록발표 시, 수필, 콩트등 여러분의 보다 많은 투고가 필요합니다. 내실있는 협회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회원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협회를 중심으로 뭉친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배부름과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아직 취업하지 못한 회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수 있게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됩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에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 경 추 견 인 법

주) 본 원고는 일본의 이료(理療)지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에서 발췌 한 것임.  
1975년 2 월간, 사단법인 전국병원이학요법협회.

### 경추견인기와 도수견인에 대한 비교

#### 1. 도수견인법의 이점

- 1) 치료사의 손을 사용함으로 촉지가 가능하다.
- 2) 희망방향으로 자유롭게 견인이 가능하다.
- 3) 견인력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 4) 환자의 증상 반응 등을 살펴가며 환자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다.
- 5) 도수정복의 치료기술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각 경추부위의 병변의 상태에 따라 손조작이 가능하다.

#### 2. 적응증

- 1) 경부척추증
- 2) 경부추간판돌출증
- 3) 경완증후군
- 4) 사 경
- 5) 경부척주증(脊柱症)
- 6) 기타, 견비통 등

#### 3. 환자의 반응을 살펴 다음의 증상이 나타나면 그 부분의 치료는 즉시 중단한다.

- 1) 이상한 견인감
- 2) 동통의 증가
- 3) 방산성 통증이 새로 나타남

- 4) 현기증이나 메시꺼움을 느낄 때
- 5) 딱딱하다거나 저린감등의 지각이상 이 나타날 때

4. 방 법

경추견인에서는 경추의 부위와 견인방향 등이 치료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점이다. 다음의 설명은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우선 경추중부부터 기술 한다.

1) 경추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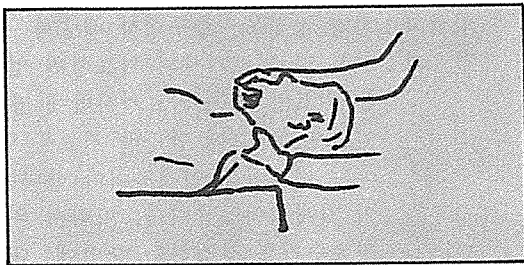
(ㄱ) 환자의 자세 : 등을 침대에 대고 똑바로 누운 자세.

(ㄴ) 치료사의 손의 위치 및 도수견인방법 : 환자의 머리쪽에 마주서서 손의 엄지와 네손가락을, 특히 인지와 중지를 사용하여 승모근의 상연을 양쪽으로 잡고 대후두결절을 엄지와 인지의 기저부의 근육에 올려놓고 잡아빼는듯 잡는다. 다른 한 손으로는 환자의 하악 중앙부를 잡는데 소지구와 외측부를 사용하여 보조수로 한다. 이 보조수는 팔굽을 직각으로 굽히고 전완의 전면이 환자의 얼굴의 측면에 닿게하여 환자의 머리자세를 고정해준다. (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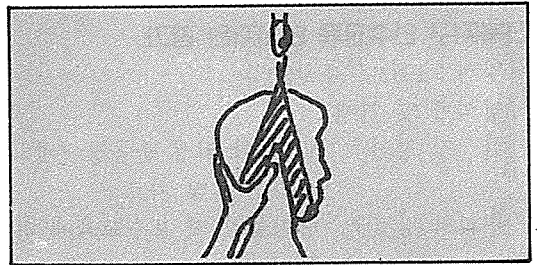
환자의 호흡과 맞추어 천천히 수평방향으로 두정부(頭頂部) 방향으로 몸통이 약간 당겨질 정도로 당겨준다.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당겨준 시간만큼 쉬게한후에 다시 당긴다.

(ㄷ) 주의 : 강한힘으로 당기거나, 갑자기 당겨주어서는 안된다. 머리 뒷부분을 잡은 손에 당기는 힘을 주로 가하고 턱을 잡은 손은 주기능이 고정이다.

그림 1 - 1. 견인기를 사용



1 - 2. 손을 사용, 손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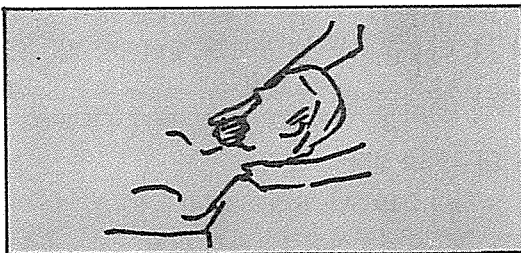
2) 경추하부

(ㄱ) 환자의 자세 :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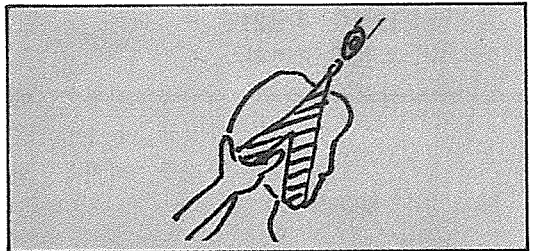
(ㄴ) 치료사의 손의 위치 및 도수견인방법 : 손의 위치나 치료사의 위치는 1)과 같다. 당기는 방법도 1)과 같으나 당기는 방향은 전상방향으로 15°~20°로 당긴다.

(ㄷ) 주 의 : 1)과 같다.

그림 2 - 1. 견인기의 사용



2 - 2. 손의 사용, 위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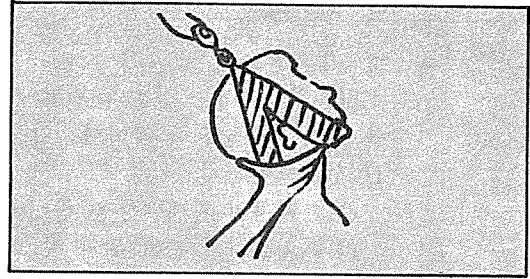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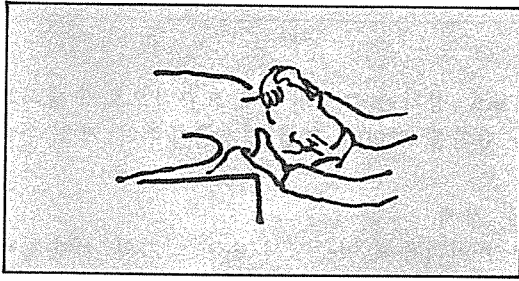


3) 경부상부

(ㄱ) 환자의 자세 : 1)과 같다. 단, 환자의 머리가 침대 끝보다 약간 돌출되도록 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준다.

(ㄴ) 치료사의 손의 위치 및 도수견인방법 : 손의 위치나 치료사의 위치는 1)과 같다. (그림 3-1) 당기는 방법도 1)과 같으나 당기는 방향은 달라 45도 후굴시켜 당긴다.

(ㄷ) 주 의 : 환자의 머리가 침대 끝에서 과신전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협회 및 회장단동정

### 중앙회 특강 개최

제목 :

연사 : 한스울젠 (독일인)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B 강당

일시 : 1983년 4월 24일 10시~15시까지

### 전북지구 연수교육 연사지원 참가

일시 : 1983년 4월 30일

참석자 및 연재 :

회 장 정진우 : Vojta의 뇌성 운동장애에 대한 조기진단 및 치료

부회장 강정구 : 협회운영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총무이사 : 배승학 : 뇌성마비의 평가 및 치료방법

### 2차 실기시험협의 및 문제선정

일시 : 1983년 5월 19일

장소 : 보건원 고시과

참석자 : 고시과장, 재활의학회장, 물리치료사회장

### 실기시험 실시

일시 : 1983년 5월 21일

장소 : 보건원 고시과

실기시험위원 : 강정구, 김인숙, 김정숙, 배성수, 배승학, 안민규, 유종면, 유인구, 이복희, 정진우, 최치옥, 황한익

최종합격 : 400명

### 보건사회부 산하단체 기능활성화 회의 참석

일시 : 1983년 5월 31일

장소 : 보건사회부 의정국장실

참석자 : 정진우, 강정구, 배승학

### 이사회 개최

일시 : 1983년 6월 10일 18시~20시

장소 : 서울대학병원

- 안건 : 1. 제 2차 국가고시 실시후의 성과검토  
 2. A. C. P. T준비관계  
 3. 회비 미납자 징계위원회 검토  
 4.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건  
 5. 회관건립기금 모금현황보고

### 의료보험에 관한 문제협의

일시 : 1983년 6월 17일

장소 : 대한의학협회 7층회의실

참석자 : 회장 정진우, 총무이사 배승학

결과 : 의사 및 의료기사의 의료행위 업무한계는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에 합당한 진료를 할 경우에는 진료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현행 우리나라의 의료법, 의료기사법, 의료보험 및 의료전달 체계를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함.

### 부산지부 방문

일시 : 1983년 6월 25일 (토요일)

장소 : 부산 메리놀 병원 강당

- 내용 : 1. 보이타 치료에 대한 강의  
 2. 부산지부현황, 실태파악 및 학술대회 준비 관계  
 3. 보수교육 지침설명 (사무국장)

### 대구지부 방문

일시 : 1983년 6월 26일 (일요일)

장소 : 대구제일정형외과 병원

내용 : 대구지부 현황 및 실태 파악

### 연수위원회 개최

일시 : 1983년 6월 27일

장소 : 신한병원

안건 : 보수교육지침에 따른 관계협의

참석자 : 보수교육위원 김용주, 김용천, 배승학, 오경환, 정진우, 이재학



진 춘장 (No. 918 83년)  
 김 희수 (No. 1152 83년)  
 김 도순 (No. 568 83년)  
 김 경연 (No. 583 83년)  
 황 환익 (No. 159 83년)  
 강 순희 (No. 369 83년)  
 허 분희 (No. 722 83년)  
 박 정호 (No. 881 83년)  
 민 영기 (No. 899 83년)  
 김 용남 (No. 477 83년)  
 김 정훈 (No. 415 83년)  
 현 성민 (No. 648 83년)  
 박 승만 (No. 998 83년)  
 김 영석 (No. 486 83년)  
 이 정희 (No. 1221 83년)  
 이 현희 (No. 403 83년)  
 강 명혜 (No. 901 83년)  
 김 택수 (No. 773 83년)  
 김 봉길 (No. 838 83년)  
 김지혜자 (No. 30 83년미반)  
 엄 기매 (No. 1176 83년)  
 최 경임 (No. 772 81년)

**북 부 지 부**

박 승구 (No. 552 83년)  
 최 재청 (No. 447 83년)  
 방 수옥 (No. 12 83년)  
 박 만자 (No. 787 83년)  
 양 태원 (No. 1056 83년미반)  
 윤 영자 (No. 312 78,79,80년반액)  
 홍 성렬 (No. 397 81,82,83년)

**중 부 지 부**

박 순홍 (No. 19 83년)  
 전 상명 (No. 316 83년)  
 우 윤숙 (No. 911 83년)  
 유 봉연 (No. 1202 83년)  
 오 종택 (No. 15 83년)  
 김 경제 (No. 636 83년)  
 정 난영 (No. 1153 83년미반)  
 이 주순 (No. 136 83년)  
 석 일현 (No. 29 83년)  
 문 현숙 (No. 1241 83년미반)

이 행규 (No. 964 83년)  
 문 애식 (No. 556 83년)  
 김 신영 (No. 759 83년)  
 구 연엽 (No. 1206 83년)  
 이 은진 (No. 1099 83년)  
 이 경정 (No. 1002 83년)  
 강 보성 (No. 845 83년)  
 김 순옥 (No. 1159 83년미반)  
 정 은선 (No. 1215 83년미반)

**남 부 지 부**

진 명학 (No. 908 83년)  
 차 공식 (No. 1186 83년)  
 김 병호 (No. 451 83년)  
 이 희옥 (No. 958 82,83년미반)  
 안 상임 (No. 920 82,83년미반)  
 이 상빈 (No. 103 83년)  
 임 성수 (No. 214 83년)  
 이 재갑 (No. 321 83년)  
 이 진우 (No. 438 81년미반,82년)  
 김 현숙 (No. 629 83년)  
 임 순화 (No. 1014 83년)  
 조 기옥 (No. 1095 83년)  
 박 미숙 (No. 1160 83년)

**인 천 지 부**

김 정임 (No. 188 83년)  
 김 명수 (No. 263 83년)  
 하 영희 (No. 345 83년)  
 노 경영 (No. 441 83년)  
 강 은숙 (No. 498 83년)  
 이 춘영 (No. 455 83년)  
 서 용범 (No. 553 83년)  
 방 미라 (No. 599 83년)  
 김 미성 (No. 630 83년)  
 안 정란 (No. 615 83년)  
 성 영희 (No. 573 83년)  
 이 진희 (No. 709 83년)  
 구 임순 (No. 867 83년)  
 정 신숙 (No. 887 83년)  
 김 순경 (No. 923 83년)  
 김 경애 (No. 1128 83년)  
 김 미애 (No. 876 83년)

문 용주 (No. 495 83년)  
 유 창호 (No. 623 83년)  
 이 근환 (No. 1161 83년)  
 조 경란 (No. 418 83년)  
 이 미란 (No. 439 83년)  
 이 종관 (No. 1058 83년)  
 최 영덕 (No. 458 83년)  
 이 은희 (No. 1235 83년)  
 이 현일 (No. 93 83년)  
 한 동직 (No. 118 83년)  
 김 승연 (No. 1147 83년)  
 장 수경 (No. 499 83년)  
 김 경기 (No. 936 83년)  
 홍 우수 (No. 667 83년)  
 구 동희 (No. 1029 83년)  
 박 승희 (No. 1094 83년)

**전 북 지 부**

조 경희 (No. 440 83년)  
 장 익선 (No. 446 83년미반)  
 최 화숙 (No. 506 83년)  
 서 희 (No. 670 83년)  
 권 춘숙 (No. 692 83년)  
 권 영옥 (No. 740 83년)  
 강 인숙 (No. 819 83년)  
 안 택수 (No. 839 83년)  
 정 태훈 (No. 884 83년미반)  
 진 희선 (No. 891 83년)  
 백 상현 (No. 966 83년)  
 전 경애 (No. 1120 83년)  
 정 삼옥 (No. 663 83년)  
 임 광희 (No. 449 83년)  
 이 선배 (No. 633 83년)  
 박 필숙 (No. 575 83년)

**강 원 지 부**

김 기호 (No. 346 83년)  
 유 형근 (No. 496 83년)  
 김 경남 (No. 524 83년)  
 양 승순 (No. 536 83년)  
 이 희순 (No. 713 81,82,83년)  
 민 경애 (No. 719 83년)  
 박 중해 (No. 721 83년)

박 영식 (No. 813 83년)  
 최 중숙 (No. 820 83년)  
 석 상령 (No. 983 83년)  
 이 귀숙 (No. 1050 83년)  
 장 정희 (No. 1185 83년)

**전 남 지 부**

박 정기 (No. 181 83년)  
 한 기룡 (No. 217 83년)  
 이 호근 (No. 662 83년)  
 이 안균 (No. 695 83년)  
 김 숙자 (No. 728 83년)  
 김 옥란 (No. 868 83년)  
 춘서 (No. 1150 83년)  
 최 명희 (No. 1061 83년)  
 오 강교 (No. 972 83년)  
 서 월순 (No. 699 83년미반)  
 김 정숙 (No. 869 83년)  
 이 현숙 (No. 882 83년)  
 임 미숙 (No. 1024 83년)  
 위 중곤 (No. 1013 83년)  
 정 중희 (No. 1036 83년)  
 정 광석 (No. ? 83년)

**부산 및 경남지부**

임 윤철 (No. 163 82년)  
 김 승인 (No. 221 82년)  
 김 용주 (No. 535 82년)  
 노 미숙 (No. 806 82,83년)  
 김 혜순 (No. 848 82년)  
 김 충문 (No. 588 80,81,82년)  
 현 상미 (No. 314 80,81년미반)  
 황 현교 (No. 50 83년)  
 염 현섭 (No. 80 83년)  
 임 광수 (No. 238 83년)  
 이 현옥 (No. 242 83년)  
 이 향구 (No. 622 83년)  
 주 창식 (No. 967 83년)  
 이 복순 (No. 148 83년)  
 고 주일 (No. 62 83년)  
 노 영철 (No. 174 79,80,81,82년)  
 유 재관 (No. 338 83년)  
 문 영숙 (No. 792 82년)

서 미전 (No. 987 83년)  
 송 보근 (No. 558 83년)  
 박 은희 (No. 688 83년)  
 서 중수 (No. 758 83년)  
 김 혜순 (No. 848 83년)  
 김 대성 (No. 1055 83년)  
 정 순이 (No. 1059 83년)  
 정 귀분 (No. 1064 83년)  
 위 석희 (No. 33 83년)  
 임 윤철 (No. 163 83년)  
 김 승인 (No. 221 83년)  
 채 병기 (No. 265 83년)  
 김 흥배 (No. 445 83년)  
 홍 성균 (No. 488 83년)  
 이 휘준 (No. 533 83년)  
 김 영철 (No. 540 83년)  
 이 동태 (No. 579 83년)  
 김 충문 (No. 588 83년)  
 이 현문 (No. 591 83년)  
 이 준희 (No. 639 83년)  
 윤 철한 (No. 687 83년)  
 이 인대 (No. 812 83년)  
 김 영찬 (No. 935 83년)  
 조 만복 (No. 961 83년)  
 박 기욱 (No. 978 83년)  
 황 현숙 (No. 1045 83년)

**경기·수원지부**

홍 완성 (No. 593 83년)  
 김 순자 (No. 609 83년)  
 김 순희 (No. 654 83년)  
 조 영순 (No. 870 83년)  
 오 복희 (No. 939 83년)  
 이 상경 (No. 985 83년미반)  
 성 치도 (No. 1084 83년)  
 이 미영 (No. 1119 83년)  
 김 순규 (No. 1163 83년)  
 유 연영 (No. 1177 83년)  
 류 미영 (No. 1187 83년)  
 박 진식 (No. 1190 83년)  
 윤 성옥 (No. 1200 83년)  
 정 태화 (No. 1246 83년미반)  
 방 상분 (No. 1247 83년)

구 희서 (No. 191 83년미반)  
 김 순자 (No. 205 83년미반)  
 김 선숙 (No. 219 83년)  
 윤 희명 (No. 355 83년미반)  
 홍 승무 (No. 534 83년)  
 변 성래 (No. 565 83년)  
 이 현숙 (No. 578 83년)  
 김 두호 (No. 600 83년)  
 최 영범 (No. 897 83년)  
 김 영옥 (No. 925 83년)  
 김 경란 (No. 1030 83년미반)  
 문 혜정 (No. 1090 83년)  
 조 경애 (No. 1052 83년)  
 민 경태 (No. 1104 83년)  
 박 명일 (No. 1157 83년)

**대구 및 경북지부**

김 중선 (No. 283 83년)  
 장 갑호 (No. 555 83년)  
 임 수희 (No. 805 83년)  
 이 정희 (No. 836 83년)  
 남 성우 (No. 1101 83년)  
 장 영대 (No. 543 83년)  
 하 찬수 (No. 572 83년)  
 이 순자 (No. 1223 83년)  
 김 학재 (No. 1226 83년미반)  
 남 용덕 (No. 723 83년미반)  
 박 래용 (No. 373 83년)  
 김 경애 (No. 829 83년)  
 허 재관 (No. ? 83년미반)  
 박 상옥 (No. ? 83년)  
 윤 영옥 (No. 750 83년)  
 이 경희 (No. 602 83년)  
 최 승선 (No. ? 83년)  
 박 현숙 (No. 1139 83년)  
 김 선희 (No. 1111 83년)  
 이 인숙 (No. 708 83년)  
 홍 두환 (No. 427 83년)  
 최 경자 (No. 1028 83년)  
 서 감우 (No. 1227 83년미반)  
 조 현자 (No. 1229 83년)  
 이 미경 (No. 864 83년)  
 채 원영 (No. 1158 83년)

주 민 (No. 677 83년)  
 도 현숙 (No. 1244 83년미반)  
 진 용철 (No. 763 83년)  
 정 영란 (No. 1238 83년)  
 하 찬수 (No. 572 84년)  
 김 양선 (No. 1231 83년)  
 김 정숙 (No. 850 83년미반)

**충 청 지 부**

홍 우태 (No. 625 83년)  
 이 연수 (No. 1080 83년)

이 동엽 (No. 883 83년)  
 유 병예 (No. 1067 83년)  
 성 기훈 (No. 142 83년)  
 안 윤진 (No. 527 83년)  
 김 범석 (No. 365 83년)  
 김 미순 (No. 562 83년)  
 최 정림 (No. 842 83년)  
 김 진자 (No. 880 83년)

**제 주 지 부**

고 경철 (No. 492 83년)

김 인성 (No. 503 83년)  
 장 문현 (No. 684 83년)

**성 남 지 부**

박 진령 (No. 894 83년)  
 김 수인 (No. 376 83년)  
 조 경숙 (No. 1134 83년)  
 최 재필 (No. 399 83년)  
 박 순정 (No. 1216 83년)  
 김 상천 (No. 1077 83년)  
 오 경환 (No. 141 83년)

**〈회관건립기금 납부자〉**

김 정현 (No. 209 동부지부) ₩ 10,000  
 이 영란 (No. 931 " ) ₩ 10,000  
 김 정임 (No. 188 인천지부) ₩ 10,000  
 하 영희 (No. 345 " ) ₩ 10,000  
 노 경영 (No. 441 " ) ₩ 10,000  
 강 은숙 (No. 498 " ) ₩ 10,000  
 이 춘영 (No. 455 " ) ₩ 10,000  
 서 용범 (No. 553 " ) ₩ 10,000  
 방 미라 (No. 599 " ) ₩ 10,000  
 김 미성 (No. 630 " ) ₩ 10,000  
 이 진희 (No. 709 " ) ₩ 10,000  
 구 임순 (No. 867 " ) ₩ 10,000  
 정 신숙 (No. 887 " ) ₩ 10,000  
 김 경애 (No. 1128 " ) ₩ 10,000  
 김 순경 (No. 923 " ) ₩ 10,000  
 김 미애 (No. 876 " ) ₩ 10,000  
 문 용주 (No. 923 " ) ₩ 10,000  
 유 창호 (No. 623 " ) ₩ 10,000  
 이 근환 (No. 1161 " ) ₩ 10,000  
 조 경란 (No. 418 " ) ₩ 10,000  
 이 미란 (No. 439 " ) ₩ 10,000  
 이 종단 (No. 1058 " ) ₩ 10,000  
 최 영덕 (No. 458 " ) ₩ 5,000  
 이 은희 (No. 1235 " ) ₩ 5,000  
 김 경기 (No. 936 " ) ₩ 10,000  
 홍 우수 (No. 667 " ) ₩ 10,000  
 김 태명 (No. 319 " ) ₩ 10,000  
 김 선비 (No. 888 " ) ₩ 5,000  
 김 성갑 (No. 944 동부지부) ₩ 10,000  
 김 혜련 (No. 1074 " ) ₩ 10,000

최 봉희 (No. 479 " ) ₩ 10,000  
 고 영숙 (No. 566 " ) ₩ 10,000  
 김 정숙 (No. 104 " ) ₩ 10,000  
 김 정숙 (No. 866 " ) ₩ 10,000  
 김 은실 (No. 453 " ) ₩ 10,000  
 이 복희 (No. 2 " ) ₩ 10,000  
 장 세업 (No. 236 " ) ₩ 10,000  
 신 홍철 (No. 157 전북지부) ₩ 10,000  
 이 재형 (No. 253 " ) ₩ 10,000  
 조 경희 (No. 440 " ) ₩ 10,000

**〈영구회비납부자 명단〉**

박 지환 (No. 635 동부지부) ₩ 120,000  
 천 봉술 (No. 350 부산 및 경남지부) ₩ 120,000  
 홍 성연 (No. 807 대구 및 경북지부) ₩ 120,000  
 박 영 (No. 185 대구 및 경북지부) ₩ 30,000  
 허 춘복 (No. 429 " ) ₩ 30,000  
 임 봉선 (No. 810 " ) ₩ 30,000  
 이 신화 (No. 1209 " ) ₩ 30,000  
 배 성수 (No. 164 " ) ₩ 120,000  
 박 흥기 (No. 216 동부지부) ₩ 120,000  
 손토비아수녀 (명예회원 수원지부) ₩ 60,000  
 권 혜정 (No. 580 수원지부) ₩ 120,000  
 차 영미수녀 (No. 1148 수원지부) ₩ 120,000  
 오 승길 (No. 505 인천지부) ₩ 120,000  
 은 여복 (No. 490 동부지부) ₩ 120,000

**〈신입회원 명단〉**

김 영대 (No. 932 부산 및 경남지부)  
 이 인대 (No. 812 " )